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90호 [루체 제23142호] 주체99(2010)년 7월 9일 (금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당과 국가간부들, 인민군장병들, 각계층  
근로자들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16돐에 즈음하여 당과 국가간부들과 우당위원장,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책임일꾼들이 8일 금수산기념궁전을 방문하였다.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을 맞이한 주체의 최고성지는 가장 숭엄한 분위기에서 열려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립상향열에는 조선로동당기와 공화국기, 조선인민군 군기들이 세워져 있었으며 조선인민군 특혜공군 명예위병들이 서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조선인민군 특혜공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선물이

장중하게 올리는 가운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립상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꽃바구니의 명기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생불멸할 것이다》라는 글씨가 쓰여져있었다.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민족의 어머니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립상을 우러러 참가자들은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참가자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어 시대와 인류가 나아

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었으며 비범한 령도력과 거창한 혁명실력으로 사회주의조국을 자주와 변영의 한길로 이끄시고 우리 인민에게 참다운 행복을 마련해주신 절세의 애국자, 불세출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삼가 인사를 드렸다.  
이날 항일혁명투사들과 인민군장병들, 각계층 근로자들이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았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찬세만세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이 땅위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우고야 말 혁명적열의에 넘쳐있었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16돐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이 8일 금수산기념궁전을 방문하였다.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우리 혁명투사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는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을 맞이하여 심심한 애도의 분위기에 잠겨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립상향열에는 조선로동당기와 공화국기, 조선인민군 군기들이 세워져 있었으며 조선인민군 특혜공군 명예위병들이 서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조선인민군 특혜공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은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그들은 선군의 가치를 높이 드시

고 혁명투사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건설, 인류자주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삼가 인사를 드렸다.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찬세만세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따라 불패의 군력으로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며 강성대국건설을 군사적으로 담보해나갈 혁명적열의에 충만 되어있었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과 국제기구대표들, 무관단과 경제 및  
무역참사단, 외국 손님들과 해외동포들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16돐에 즈음하여 주조 여러 나라의 외교대표들과 국제기구대표들, 무관단이 8일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경애하는 수령님께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립상향열에는 조선로동당기와 공화국기, 조선인민군 군기들이 세워져 있었으며 조선인민군 특혜공군 명예위병들이 서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조선인민군 특혜공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외교대표들과 국제기구대표들, 무관단성원들은 나라들사이의 친선관계발전과 인류의 자주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도의 마음안고 그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그들은 시대와 역사앞에 거대한 업적을 쌓으시어 만민의 높은 정중을 받으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인사를 드렸다.  
손님들은 방문록에 글을 남기었다.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주조 경제 및 무역참사단이 경의를 표시 하였다.

주의조국에 체류하고있는 제일동포 조국방문단,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 조국방문단들, 해외동포들이 8일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경의를 표시하였다.  
외국 손님들과 해외동포들은 나라의 흥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셨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의 마음안고 경애하는 수령님께 인사를 드렸다.  
그들은 방문록에 글을 남기었다.  
한편 이날 경애하는 수령님께 반 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구 대표와 지방성원들이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경의를 표시하였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꽃바구니 진정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함없는 그리움과 경도의 마음을 안고 만수대안덕으로 오르는 각계층 인민들 본사기자 강정민 찍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16돐에 즈음하여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8일 금수산기념궁전의 동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해만 가는 민족의 어머니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도의 정을 안은 군중들이 만수대안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으로 끝없이 물결쳐올랐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 앞에는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꽃바구니가 놓여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에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과학, 교육, 문화예술, 보건, 출판보도기관, 공장, 기업소, 학교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또한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구,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과 외국인들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꽃바구니들의 명기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생할 것이다》 등의 글씨가 쓰여져있었다.  
참가자들은 조국의 해방과 부강번영, 인민의 행복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셨으며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빛나는 혁명생애와 고귀한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기며 수령님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렸다.  
인민군장병들과 각계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도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을 맞으며 자기 고장에 모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

을 찾았다.  
그들은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어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까지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애민헌신의 사시를 수놓아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를 진정하고 인사를 올렸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어 태양의 역사는 영원히 흐르리라것을 확인하며 당의 선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는 이 땅위에 위대한 수령님의 넋이 꽃된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울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가다듬었다.

## 절세위인들의 영상을 모신 모자이크벽화

여러 단위에 건립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영상을 모신 모자이크벽화가 여러 단위에 건립되었다.  
해산영애군일일용품공장, 신계군 백곡리, 립산군 상하리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모자이크벽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를 일떠세웠다.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영생하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환히 웃으시는 모습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

《경애하는 어버이 김일성동지는 인민의 심장속에 영원할 것이다》가 사리원청년동에 세워졌다.  
주장군 읍에 건립된 모자이크벽화에는 조선의 잘 알아야 한다고 하신 아버님의 말씀에 가슴깊이 새기고 어리신 나이에 《배움의 천리길》에 나서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모습이 형상되어있다.  
우리 인민에게 보다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한평생 인민행복자를 타시고 조국방위장군을 쉬임없이 찾으신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품모를 보여 주는 모자이크벽화 《해산청년광산

을 찾았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해산청년광산에, 《황금산에 오르신 위대한 수령님》이 창성군 고사리에 일떠세웠다.  
락랑구역 풍호협동농장에 건립된 모자이크벽화 《만물에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풍요한 농장밭을 바라보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영상이 모셔져있다.  
이곳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한평생 인민행복자를 타시고 조국방위장군을 쉬임없이 찾으신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품모를 보여 주는 모자이크벽화 《해산청년광산

을 찾았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해산청년광산에, 《황금산에 오르신 위대한 수령님》이 창성군 고사리에 일떠세웠다.  
락랑구역 풍호협동농장에 건립된 모자이크벽화 《만물에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풍요한 농장밭을 바라보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영상이 모셔져있다.  
이곳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한평생 인민행복자를 타시고 조국방위장군을 쉬임없이 찾으신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품모를 보여 주는 모자이크벽화 《해산청년광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941호 주체99(2010)년 7월 8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투자지도를 위한 조약 체결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투자지도를 위한 조약 체결에 대하여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대책을 세울것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양

## 《인민의 어버이》

매히꼬 단체 블레쨌 발행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서거 16돐에 즈음하여 매히꼬주체사상연구소에서 경애하는 수령님의 사적을 모시고 블레쨌 《인민의 어버이》를 발행하였다.  
블레쨌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주석께서는 서거하신지 어느덧 16년이 되어오지만 조선인민은 여전히 그이를 《우리 수령님》, 《우리 어버이》로 칭송하고있다.  
주석의 생애는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그들과 한치의 간격도 없이 생활하시고 운명을 함께 하신 한평생이었다.  
블레쨌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이 있는 곳이라면 아무리 멀고 험한 곳이라도 다 찾아가시어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

신대 대하여 자료적으로 소개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실로 조선에는 심심산골로부터 외진 섬마을에 이르기까지 김일성주석의 발자취가 어찌있지 않은 곳이 없고 그의 보살핌이 스며있지 않은 곳이 없다.  
주석께서 인민은 사랑 하는 아들딸들이었다. 그 찬란 자식들을 위해 주석께서는 명철담, 휴식일과 지어 생신날에도 쉬임없이 일하시었다.  
진생애를 분과 초를 쫓아가시며 인민의 행복을 위해 고스란히 바치신 주석께서 인민의 기쁨은 곧 자신의 기쁨이었다.  
블레쨌는 언제나가 전국 모든 학생들에게 국가에서 교복과 학용품들을 일식으로 갖추어 공급해주도록 조치를 취해 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복

임은 학생들이 보고싶으시어 지방의 한 학교를 찾으신다고 오랜 시간 사진을 찍어주시는데 대하여,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여러 협동농장들의 포전길에 걸으시면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마음쓰신데 대하여 전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인민이 김일성주석을 《우리 수령님》, 《어버이수령님》이라고 호칭해왔고 지금도 《영원한 주석》, 《영원한 어버이》로 높이 모시고있다는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인민의 어버이로서의 김일성주석의 자애로운 영상은 조선인민뿐 아니라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마음속에 길이 빛날 것이다.  
【조선중앙통신】

## 불멸의 혁명업적을 빛내이기 위한 힘있는 정치사업

각지 당 조직들에서

어버이수령님의 서거 16돐을 맞이한 우리 인민의 가슴가슴은 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경도의 정으로 그 어느때보다도 세차게 끓고 있다.  
각지 당 조직들에서는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숭고한 사상감정과 격동적인 현실의 요구에 맞게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전열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 심화시켜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깊이 인식시킴으로써 그들이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당면대에 길이 빛내이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각지 당 조직들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전열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는 사업을 김일성민족의 불굴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폭발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의 주축으로 틀어쥐고 적극 심화시켜나가고있다.  
광강도당위원회에서는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에 자주 찾아가 해당 단위 당조직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에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활발히 벌려나가고있다.  
도당위원회 책임일꾼들은 시, 군당조직들과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당조직들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들끓는 분위기에 맞게 생산자대중이 일하는 전투현장을 기본무대로 하여 어버이수령님의 모범적 사업을 표상해내고, 《도동심본》 기사들에 대한 독보, 노래보급 등을 기동성있게 조직하여 시, 군당조직들과 근로자들이 사상과 령도의 거장으로 시의 수령님의 위대한 생애를 다시금 뜨겁게 되새기도록 하고있다.  
황해남도당위원회에서는 일꾼들이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인민들의 먹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험한 포전길을 걸고걸으신 어버이수령님의 로고를 전하는 감동깊은 자료들을 가지고 협동농장들이 나가 화신정치사업들을 때기있게 벌려나가고도록 하고 있다.  
평안남도, 함경북도, 황해북

도를, 함경남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강원도를 비롯한 다른 당조직들에서도 일꾼들이 항일유격대식으로 배낭을 메고 아예 내려가 대중과 술결을 같이 하면서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선진선동사업을 참신하고 실효성있게 전개해나가고 있다.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현지도사적이 어려웠던 경공업부문과 농업부문의 경공업부문들이 수령님의 혁명업적을 빛내이기 위한 사업의 맨 앞장서서 기세좋게 내달리고 있다.  
김정숙평양제지공공장, 평양방직공장, 신의주방직공장,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제명군 삼지강협동농장, 함주군 동봉협동농장을 비롯한 경공업부문과 농업부문의 수많은 당조직들에서는 자기 단위에 어려웠던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통한 사상교양사업을 실효성있게 벌려 대중을 수령님의 유훈 관철을 위한 투쟁에 힘있게 불려일이고 있다.

당조직들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길이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대를 이어 전열히 옹호

고수하고 빛내어나가는 길이라는 관점을 대중속에 확고히 세워주면서 그들이 일떠마치어 선군시대의 새 기준, 새 기록을 창조해나가고도록 적극 불려일이고 있다.  
김책철련합기업소, 천리마철련합기업소, 성진제강련합기업소,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북강화력발전련합기업소, 강계청년발전소,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김중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인민경제 4대산업부문의 당 조직들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높은 대고조실적으로 빛내이기 위한 당조직정치사업을 기백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전열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어나갈 철석의 신념과 의지가 생산자대중의 가슴마에다다라 짝 차넘치는 가운데 강성대국건설대진이 날아치는 전투장에서는 날에 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고 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성과에 조금도 자만함이 없이 화신적 정치사업의 열매를 계속 새차게 지퍼올리면서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빛내이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나가고있다.  
본사기자 리정수

# 주체의 태양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찬란한 미래에로!

## 그리움의 대하 끝없이 굽이치는 금수산기념궁전광장에서

주체로 빛나는 이 땅위에 수령영생위업의 역사가 흐르고 있다.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년토대를 튼튼히 마련해놓으셨을뿐 아니라 위대한 사상과 불멸의 업적, 고결한 품격으로 시대를 무한히 격동시키신 어머니수령님에 대한 찬없는 그리움과 불같은 유순관철의 의지로 심장을 피뿐여온 수령영생연대기!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우리 군대와 인민으로 하여금 어머니 위대한 분을 수령으로, 어머니로 모시고 살며 혁명해 왔음을 더더욱 뜨겁게 절감하게 하는 7월 8일,

이 시각 천만군민의 마음과 마음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기념궁전으로 팔없이 달려가고 있다.

자라나고 있는 어린이를 그러며 선군의 길을 역세계 걸어온 수령님의 전사, 제자들의 한결같은 마음이 어려서인가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기념궁전의

금빛찬란한 대원수령이 빛나는 웅장한 돌대문이 활짝 열렸다. 어머니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명동대사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기어이 일떠세울 불타는 맹세를 안고 이곳을 찾은 수많은 사람들로 금수산기념궁전광장은 새차레 숨어버리고 있었다.

위대한 명도자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세월이 흐를수록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위인으로서의 찬품을 타고난 위대한분류시라는것을 더욱 더 깊게 절감하게 됩시다.》

아침일찍부터 우리 수령님을 쫓아다니는 인민군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의 물결이 광장으로 끌어들여 울려퍼졌다.

대원수령이 승엄하게 부각되

어있는 돌대문을 지나 환히 웃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태양상앞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그들의 열광마다에는 한평생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자애로운 어머니에 영원한 수령으로 모신 찬없는 영광과 행복이 어려졌다.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김정일장군님을 받들어 강성대국건설의 평야로 우리 손길이 닿아 울려퍼지는 우리모두를 오늘도 환롭게 안아주시는듯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짓고계시는 어머니수령님,

위대한 수령님, 수령님의 하늘같은 믿음과 손길아래 선군혁명의 주력군으로 자라난 저희들이 왔습시다라고 뜨겁게 아뢰이며 경건히 인사드리는 인민군장병들, 세세대 군인들과 포도자, 농민, 사무원, 청소년학생들을 비롯하여 이곳을 찾는 사람들도두가 빼앗긴 조

국을 찾아주시고 이 땅위에 인민이 주인되고 인민의 행복한 삶이 활짝 꽃피는 사회주의락원을 일떠세워주시었으며 후손만대의 미래를 찬란히 펼쳐주시신 위대한 민족의 은인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에 휩싸여 발걸음도 승엄하게 옮기는 금수산기념궁전광장에서.

《어머니수령님의 태양의 모습을 우리들처럼 영원히 품고 싶고 그 길을 따라가며, 험난한 길을 다 걸으시고 그 길에서 더없는 기쁨과 보람을 찾으시던 자애로운 어머니의 해빛같은 미소가 어려와 격정을 금할수 없습니다. 정말이 자랑의 마지막순간까지 오로지 인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우리 수령님을 떠나 강성대국으로 뚫고오르는 오늘날의 북한 현실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습니다.》

광장에서 우리와 만난 상업성 부상 리완수동무의 감동어

린 말이었다.

절세의 위인들의 품속에서 인민의 북부자로 보람찬 성장의 길을 걸어온 금지를 안고 자랑스럽게 들려주는 그의 이야기는 잊지 못할 추억으로 젓어 있었다.

돌아보면 10대의 그 시절부터 80여명에 이르기까지 한평생 인민행렬차를 타고 인민들속으로 끊임없이 들어간 우리 수령님과 같은 인민의 수령이 이 세상 그 어디에도 계시지 않다.

인민을 믿고 인민에 의지하면 백만 승리하지만 인민의 버림을 받게 되면 백만 패한다는 고귀한 진리를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혁명의 머나먼 길을 헤쳐오신 우리 수령님, 그이께서는 해방전후부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2만 600여개의 단위를 천지지도하시였으며 그로 정의 총연장길이는 14만 5천여리에 달한다.

눈물없는 하늘을 보지 않는 어머니수령님의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이야기가운데는 이처럼 존엄했던 항일의 나날 인민들의 생명제산을 떨 끝판치도 다치지 않도록 유격대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신 사실이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가벌적절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인민들이 결의 생활상고용을 두고 잠 못 드시며 친히 은정어린 조

치들을 위해 주신 가슴뜨거운 이야기들도 있다.

인민들속으로 들어가고 그들과 같이 지내는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하시면서 언제나 인민들과 고풍을 함께 하신 어머니수령님의 고결한 품모에 대해 세 세대에 걸쳐 감동깊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속에는 농업성의 한 일군도 있었다.

한층의 미사기부와 같은 사람의 이야기들이 수놓아진 항일의 나날에는 물론 해방후에도 인민들이 조밥을 먹을 때는 우리 조밥을 먹어야 한다고 하시며 가시는 곳마다에서 뜨거운 사랑의 자국을 새긴 우리 수령님이시었다.

하늘같은 업적을 쌓으셨고 자신을 늘 인민의 아들로 생각하시며 인민들과 한치의 간격도 없이 생활하신 인민의 어머니, 정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역사는 만대에 길이 빛날 투쟁과 업적으로 수놓아진 영광의 역사이며 만사람의 가슴을 격동시키는 생활과 투쟁의 불멸의 교과서이다.

어머니수령님의 태양상을 오래도록 우러르며 눈물을 적시는 사람들속에는 청류반의 일군인 황영웅동무도 있었다.

그는 환히 웃으시는 우리 수령님의 영상을 우러르니 경애하는 장군님의 손길아래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또 하나의 금강봉사기지가 마련되였다고 리도 기쁘시며 커다란 민족을

표시하시면서 청류반 곳곳에 거룩한 자국을 수놓아가시던 수령님의 그날의 모습이 되새겨진다고 말하는것이였다.

그러면서 어머니수령님의 이념위권의 리념을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하늘같은 사랑속에서 최소년간에만도 청류반이 개건되여 인민들이 즐겨찾는 곳으로 되였다고 격정을 금치 못했었다.

참으로 우리 수령님은 만민의 심장속에 영생하시는 태양이시구나 하는 승엄한 감정이 솟구쳐오르고 수령님의 업적은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영원히 빛을 뿌릴것이라는 신념을 천만의 가슴속에 더욱 익착깊이 새겨주는 금수산기념궁전광장에서는 어머니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은 조진로동당대표자회의와 당창건 65돐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공로, 우리 당과 조국정사에 길이 빛날 경사로 맞이할 불같은 결의를 새롭게 다지며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로 차고넘치는 주체의 최고성지,

조선인민군 군관 박진동동무는 확신에 넘쳐 이렇게 말하였다.

《은 우리 밝아지도록 환히 웃으시는 어머니수령님의 모습에서 우리 인민군장병들은 주체혁명위업완성을 위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상을 아바트르 변함없이 받들어오라고 당부하시던 우리 수령님의 간곡한 유훈을 되어 새기겠습니다.》

우리들은 수령님의 유훈을

지켜 하늘땅이 열백번 변한다 해도 오직 경애하는 장군님을 온 몸과 맘으로 따를것이 강성대국건설을 총대로 믿음직하게 담보할것입니다.》

이런 신념의 목소리를 우리는 조선인민내무군 군관 리남철동무와 함남남도 덕성군 문화중학교 교원 동남동무, 대동지도국 수송기동대 일군들과 농업원들에게서도 들을수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금수산기념궁전광장에서는 어머니수령님과 우리 인민들사이에서 맺어진 혈연의 정이 뜨겁게 넘쳐나고 수령, 당, 대중의 위대한 훈연일체의 위력으로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예법을 온 세상에 활화산같이 떨칠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의 맹세가 분출되고있었다.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우리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은 안고 찾아오는 사람들과 뜻깊은 조진로동당대표자회의와 당창건 65돐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공로, 우리 당과 조국정사에 길이 빛날 경사로 맞이할 불같은 결의를 새롭게 다지며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로 차고넘치는 주체의 최고성지,

조선인민군 군관 박진동동무는 확신에 넘쳐 이렇게 말하였다.

《은 우리 밝아지도록 환히 웃으시는 어머니수령님의 모습에서 우리 인민군장병들은 주체혁명위업완성을 위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상을 아바트르 변함없이 받들어오라고 당부하시던 우리 수령님의 간곡한 유훈을 되어 새기겠습니다.》

우리들은 수령님의 유훈을

말씀하시었다.

《은 우리 밝아지도록 환히 웃으시는 어머니수령님의 모습에서 우리 인민군장병들은 주체혁명위업완성을 위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상을 아바트르 변함없이 받들어오라고 당부하시던 우리 수령님의 간곡한 유훈을 되어 새기겠습니다.》

우리들은 수령님의 유훈을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별스카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와르사야  
별스카공화국 대통령  
브로니스와브 궤모릅스끼각하  
나는 당신이 별스카공화국 대통령으로 선거된대 대하여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나라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당신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99 (2010) 7월 7일 평양

## 절세위인의 거룩한 행로에서

현장에서 열린 협의회  
어느날 겨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안전면도날을 생산하는 한 공장을 찾으시였다.

안전면도날제작업장에 이르시여 반듯반듯하게 연타워져나오는 안전면도날을 기뻐 하신 시선으로 바라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손수 면도날 한개를 집어드시었다.

그러시고는 면도날을 살펴보고 휘여도 보시며 누가 이 면도날을 써보았는가, 틀에 꽂으면 날이 약해서 변형되지 않는가고 물으시는것이였다.

순간 일군들은 선뜻 대답을 드리지 못하였다. 그때까지 누구도 면도날의 질에 대하여 어떻게까지 세심하게 가늠해본 사람이 없었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

## 미루어진 착공날자

박한데 석달이나 미루다니... 그의 심정을 헤아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겨울에 이사를 하게 되면 김장독을 깨 내야 하는데 조선사람들이 꺼리지 않게 어떻게 살겠는가고 말씀하시였다.

일군은 커다란 감격으로 목이 짝 마어올라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하였다.

인민들이 사소한 불편이라도 느낄세라 그토록 마음쓰시는 어머니수령님, 우리 수령님은 정녕 온 나라 가정의 친아버이 이시였다.

브스키자 백영미

## 불처럼 뜨거운 인간애

인민들과 후대들을 위하여 바치신 항일의 너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불처럼 뜨거운 인간애는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을 더욱 울려 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숙동무는 언제나 자기자신보다도 조국과 인민, 동지들을 먼저 생각하였으며 조국의 자주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했습니다.》

조국이 해방된 이듬해 3월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저택 근처에 한 일군의 안해가 세살팍을 끼게 되였다. 그로 말하면 위대한 수령님의 은정어린 조치에 의하여 남편부에서 외롭게 살다가 얼마전에 어린이를 얻고 남편이 있는 복판으로 들어온 녀성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들의 생활에 대하여 늘 마음쓰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격정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친혈육의 심정으로 극진히 보살펴주시였다.

어느날에는 쌀과 부엌재간들

도 보내주시고 또 언제인가는 옷감과 이불도 보내주시었다. 그리고 매일같이 그 집에 찾아가시여 불이 잘 드는가, 불편한 점은 없는가를 알아보시고 예로되는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시였다. 그 녀성이 아이를 낳았을 때에는 부엌에서 불을 때주시고 미국국도 끓여 주시였다.

몇몇가 지난 어느날이였다. 그 녀성의 두 아이가 뜻하지 않게 흥으로 알아듣게 되였다. 이런 봉변을 처음 당하고 보니 그는 당황해하지 않을수 없었다. 바로 이러한 때 김정숙동지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그의 집을 찾으시였다.

뜻밖에 김정숙동지를 뵈옵자 그는 반가워하시면서도 애들이 무서운 전염병을 앓는다고 하면서 방으로 들어오시면 안된다면서 걱정하시였다.

그러나 김정숙동지께서는 무슨 그런 응졸한 생각을 하는가, 병은 무서워하면 더 겁먹는다고 하시며 방안으로 들어오시라고 하시였다. 그 녀성은 그의 앞을 막아서며 그러시면 안된다고 울음위인 목소리로 안타까이 말씀드리였다.

전염병을 앓는다고 찾아다니지 않는다면 그것이면 무슨 사람의 인성이고 그러인가. ... 이렇게 격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아이 앞에서 있는 방으로 서슴없이 들어주시였다.

순간 그 녀성은 뜨거운것이 가슴에 치밀어올라 격정의

눈물을 쏟고야말았다. 사실 남편이 장기출장을 떠난 후에 자식들이 병에 걸려 생사를 가늠할수 없게 되자 그는 어찌할바를 몰라하고있었다. 그런데 김정숙동지께서 찾아오시여 이렇듯 뜨거운 정을 부어주시는 그의 가슴이 어찌 격정으로 불꽃이 되지는 않았겠는가.

잠시후 앓는 두 아이의 머리를 다정히 질으시고 얼굴을 찬찬히 돌리며 보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아이들이 발진이 잘되는것 같지 않다고 하시며 아이들을 빨리 회복시켜야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리고는 자신께서 가지고오신 귀한 약을 손수 때막이고 방을 더 덥혀야 하겠다고 하시며 부엌으로 나가시였다.

이윽고 장작불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방안도 훈훈해졌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두 노우이가 땀을 흘려내며 발진이 잘되는것을 보시고자 마음이 놓이는 듯 활짝 웃으며 흐르는 땀을 씻으며 미소를 지으시였다. ... 언제인가 어머니수령님께서는 김정숙동무는 인간을 불처럼 사랑하는 사람이였다고, 그는 남을 위한 희생을 조금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감회깊이 말씀하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불처럼 뜨거운 인간애에 대한 감동깊은 이야기들은 강성대국건설전선에 떨쳐나선 천만군민을 환하게 고무추동하며 끝없이 전해지고있다.

브스키자 김성남

## 영광의 자욱을 따라

로동당시대의 무릉도원으로  
곽산군 초장리에 어린 뜨거운 사랑  
경기도 새로운 주제 89 (2000) 5월 어느날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의주군 농협동농장, 정주시 신천동농장과 함께 곽산군 초장협동농장을 천지지도하시였다.

어느덧 10년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아침식사까지 뒤로 미루시고 토지정리의 휘황한 전명을 펼치시며 농장을 사회주의무릉도원으로 빛내이도록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주시던 경애하는 장군님의 모습을 초이로 기억하시는 사람들은 오늘도 잊지 못하고 있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대규모의 규격포전들이 펼쳐진 일망무제한 협동농장을 바라보시면서 봉건적토지소유의 잔재를 흔적도 없이 청산하고 진정한 사회주의의 정당한 면모를 일신하였으며 풍요한 대지에서 기계로 마음껏 농사를 지어왔던 하던 우리 농민들의 세기적속량이 빛나게 실현될수 있게 된대 대하여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오늘 평등하게 펼쳐진 찬란한 현실을 자랑하고 결심하든 못해할 일이 없다는 결사의 신념을 안고 지주도 통제로 들어올릴 기세로

## 평양의 자욱을 따라

지도면에 협의회가 열리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협의회에서 면도날의 질을 높일 대 대한 방도를 밝혀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표향산》안전면도날에는 이렇듯 인민에 대한 우리 수령님의 숭고한 사랑이 어려 있었다.

매대의 답을 보시고  
주제 56 (1967) 12월 어느날이였다.

수도의 어느 한 식료품상점을 찾으니여 알과 고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식료품들로 풍성한 매대를 둘러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판매원에게 손님들이 제일 많이 요구하는 식료품은 어떤것인가, 대답은 딸기라고 하였다. 딸기는 어떻게 파는가를 일일이 알아 보시였다.

산 닭을 판매하는 사실을 알게 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닭의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달아보라고 이르시였다. 서로 정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마리당 닭의 무게가 가벼울 때에 비하여 평균 200g정도 줄어들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목장에 서 삼점까지 가져오라고 줄을 차고 두 상점에 와서 줄은 장안에 지어달라 간직해 먹이

결으신 포전길, 일군들이 잠시라도 뛰여주실것을 거듭 간청할 때마다 일군들이, 자신께서는 평안북도인민들을 잘 살게 해주려고 이곳에 왔다고 하시며 오히려 일군들의 마음을 녹여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날의 현지지도의 길은 초장리에 천지개벽의 현실을 안아온 위대한 천한의 길이었다.

초장협동농장의 전체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지도를 받들어 한 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그들은 농장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하여 수심동의 문화주택들과 공공건물들을 새로 일떠세웠으며 도로정리와 새땅갈기를 힘있게 내밀었다. 뿐만아니라 논밭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나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따라배우는 연구실, 진로소, 학교, 관리위원회, 문화주택들을 새로 건설하여 리소제지와 2작업반, 3작업반 마을을 먼 후배에 가셔도 손색없이 꾸민것이며 해마다 일출생산을 늘린것은 그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지도를 받들어 초장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이룩한

브스키자 김성남  
브스키자 백영미  
브스키자 김성남  
브스키자 백영미  
브스키자 김성남  
브스키자 백영미  
브스키자 김성남  
브스키자 백영미  
브스키자 김성남  
브스키자 백영미





# 회고음악회 《영원한 미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16돐 회고음악회 《영원한 미소》가 8일 동평양대극장에서 진행되었다.

당과 군대, 국가간부들과 유망위원장, 당, 무역, 정권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꾼들, 근로자들, 평양시대 근로자들이 음악회를 관람하였다.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과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가 음악회를 보았다.

7월의 음악회장에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수령영생의 진리를 뜨겁게 새겨주며 합창 《우리 수령님》, 《해빛같은 미소 그림습시다》가 울려 퍼졌다.

오로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한평생을 바친 신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어머니에 대한 추가속에 해빛같은 미소를 지어주시는 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수록한 화폭들이 무대배경에 펼쳐져 관람자들은 격정을 금치 못해하였다.

진실적위인에 대한 열화같은 경모심이 장내에 끓어오르는 가운데 바이올린독주와 합창 불후의 고전적명곡 《사향가》, 녀성독창 《수령님 뵈옵던 잊지 못할 그 새벽에》, 남성중창 《그 사람 닮치며 쇠물은 흐르네》, 녀성독창 《수령님 만고공상 못습니다》, 녀성 8중창 《오직

한마음》을 비롯한 종목들이 무대에 울렸다.

출연자들은 항일의 혈전만리, 눈보라만리를 헤치며 배앗긴 조국을 찾아주시고 이 땅에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신 위대한 수령님의 영원불멸할 업적을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의 커가는 행복에서 자신의 기쁨을 찾으시며 온 나라 방방곡곡에 사랑의 자욱을 수놓으신 아버지수령님의 혁명생애를 깊은 감회속에 돌이켜보게 하는 종목들은 관람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념원을 꽃피

우시기 위해 애국헌신의 헌지지도 강행군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 땅에 인민의 리상이 실현되는 희한한 현실이 펼쳐지고있음을 절감하게 하는 녀성 2중창 《비남론 삼천리》, 혼성 4중창 《그이의 리상》, 녀성 5중창과 합창 《만북의 문 열리네》 등은 관람자들에게 사회주의강성대국의 승리가 지척에 있다는 확신을 안겨주었다.

음악회의 절정을 이룬 합창 《놀이 들자 붉은기》, 《영원한 그 미소》는 관람자들이 아버지수령님 그대 로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어 휘황찬란한 선군조선의 미래와 더불어 길이 빛날 우리 수령님의 위인상을 가슴 깊이 간직하게 하였다.

회고음악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의 의지를 힘있게 보여주었다.

회고음악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의 의지를 힘있게 보여주었다.

회고음악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의 의지를 힘있게 보여주었다.

회고음악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의 의지를 힘있게 보여주었다.

회고음악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의 의지를 힘있게 보여주었다.

회고음악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의 의지를 힘있게 보여주었다.

회고음악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의 의지를 힘있게 보여주었다.

회고음악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의 의지를 힘있게 보여주었다.

회고음악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의 의지를 힘있게 보여주었다.

회고음악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의 의지를 힘있게 보여주었다.

회고음악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의 의지를 힘있게 보여주었다.

회고음악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의 의지를 힘있게 보여주었다.

회고음악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의 의지를 힘있게 보여주었다.

회고음악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의 의지를 힘있게 보여주었다.

회고음악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의 의지를 힘있게 보여주었다.

회고음악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의 의지를 힘있게 보여주었다.

회고음악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의 의지를 힘있게 보여주었다.

회고음악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의 의지를 힘있게 보여주었다.

회고음악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의 의지를 힘있게 보여주었다.

회고음악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의 의지를 힘있게 보여주었다.

회고음악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의 의지를 힘있게 보여주었다.

회고음악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의 의지를 힘있게 보여주었다.

회고음악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의 의지를 힘있게 보여주었다.

회고음악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의 의지를 힘있게 보여주었다.

회고음악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의 의지를 힘있게 보여주었다.

회고음악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의 의지를 힘있게 보여주었다.

회고음악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의 의지를 힘있게 보여주었다.

회고음악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의 의지를 힘있게 보여주었다.

회고음악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의 의지를 힘있게 보여주었다.

회고음악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의 의지를 힘있게 보여주었다.

회고음악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의 의지를 힘있게 보여주었다.

회고음악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의 의지를 힘있게 보여주었다.

# 희천에서 만나자

랑만적으로 금지높이 (♩ = 120)



1. 우리는 -심장에 불을달고 제일 선에 왔어라 장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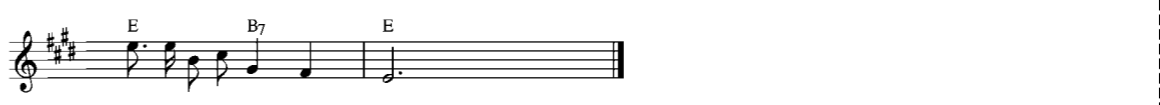
님 -부르신 강성대국 전조선에 왔어라



애국의 첫자리 서서려면 - 청춘들이 오시라



위훈의 앞자리 나 서려면 - 희천으로 오시라



희천에서만 만나자

2. 새해의 첫아침 언저찾아 눈길헤쳐 오셨네
3. 장군님 결심을 온 세상에 보여주는 평이다
- 4월의 그 봄날 물길막장 석수헤쳐 오셨네
- 역사의 기적이 소리치며 솟아나는 평이다
- 그리운 장군님 뵈오려면 청춘들이 오시라
- 조국에 심장을 바치려면 청춘들이 오시라
- 근위병 영예를 떨치려면 희천으로 오시라
- 신군의 금별로 빛나려면 희천으로 오시라
- 희천에서 만나자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중국 항일혁명렬사 장을화동지의 가족과 스위스조선위원회에서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16돐에 즈음하여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동상에

중국항일혁명렬사 장을화동지의 서거 8일 꽃바구니들을 보내어왔다.

꽃바구니들의 맹기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생할것이다》라는 글발이 띄여져있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중국 길림성 장백현대표단 꽃바구니들을 진정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16돐에 즈음하여 8일 중국 길림성 장백현대표단이 보낸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중국항일혁명렬사 장을화동지의 서거 8일 꽃바구니들을 보내어왔다.

꽃바구니들의 맹기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생할것이다》라는 글발이 띄여져있다.

## 세월과 더불어 영원할 다함없는 흠모의 분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조국강산에 뜨겁게 끓어오르는 가운데 각계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아버지수령님의 서거 16돐을 가장 경건한 마음을 안고 맞이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조국강산에 뜨겁게 끓어오르는 가운데 각계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아버지수령님의 서거 16돐을 가장 경건한 마음을 안고 맞이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조국강산에 뜨겁게 끓어오르는 가운데 각계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아버지수령님의 서거 16돐을 가장 경건한 마음을 안고 맞이하였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업적 회고모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16돐에 즈음하여 중국 국제우호연락회와 베이징국제우호연락회의 공동주최로 7일 베이징에서 회고모임이 진행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조국강산에 뜨겁게 끓어오르는 가운데 각계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아버지수령님의 서거 16돐을 가장 경건한 마음을 안고 맞이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조국강산에 뜨겁게 끓어오르는 가운데 각계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아버지수령님의 서거 16돐을 가장 경건한 마음을 안고 맞이하였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업적 회고모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조국강산에 뜨겁게 끓어오르는 가운데 각계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아버지수령님의 서거 16돐을 가장 경건한 마음을 안고 맞이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조국강산에 뜨겁게 끓어오르는 가운데 각계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아버지수령님의 서거 16돐을 가장 경건한 마음을 안고 맞이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조국강산에 뜨겁게 끓어오르는 가운데 각계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아버지수령님의 서거 16돐을 가장 경건한 마음을 안고 맞이하였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업적 회고모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조국강산에 뜨겁게 끓어오르는 가운데 각계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아버지수령님의 서거 16돐을 가장 경건한 마음을 안고 맞이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조국강산에 뜨겁게 끓어오르는 가운데 각계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아버지수령님의 서거 16돐을 가장 경건한 마음을 안고 맞이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조국강산에 뜨겁게 끓어오르는 가운데 각계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아버지수령님의 서거 16돐을 가장 경건한 마음을 안고 맞이하였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업적 회고모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조국강산에 뜨겁게 끓어오르는 가운데 각계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아버지수령님의 서거 16돐을 가장 경건한 마음을 안고 맞이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조국강산에 뜨겁게 끓어오르는 가운데 각계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아버지수령님의 서거 16돐을 가장 경건한 마음을 안고 맞이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조국강산에 뜨겁게 끓어오르는 가운데 각계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아버지수령님의 서거 16돐을 가장 경건한 마음을 안고 맞이하였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업적 회고모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조국강산에 뜨겁게 끓어오르는 가운데 각계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아버지수령님의 서거 16돐을 가장 경건한 마음을 안고 맞이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조국강산에 뜨겁게 끓어오르는 가운데 각계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아버지수령님의 서거 16돐을 가장 경건한 마음을 안고 맞이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조국강산에 뜨겁게 끓어오르는 가운데 각계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아버지수령님의 서거 16돐을 가장 경건한 마음을 안고 맞이하였다.

## 김정일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받들어 김일성주석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어이 관철하자

반제민전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담화 발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통일과 관련한 중대문건에 역사적인 칙령을 남기신 16돐에 즈음하여 반제민전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7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통일과 관련한 중대문건에 역사적인 칙령을 남기신 16돐에 즈음하여 반제민전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7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통일과 관련한 중대문건에 역사적인 칙령을 남기신 16돐에 즈음하여 반제민전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7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업적 회고모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조국강산에 뜨겁게 끓어오르는 가운데 각계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아버지수령님의 서거 16돐을 가장 경건한 마음을 안고 맞이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조국강산에 뜨겁게 끓어오르는 가운데 각계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아버지수령님의 서거 16돐을 가장 경건한 마음을 안고 맞이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조국강산에 뜨겁게 끓어오르는 가운데 각계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아버지수령님의 서거 16돐을 가장 경건한 마음을 안고 맞이하였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업적 회고모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조국강산에 뜨겁게 끓어오르는 가운데 각계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아버지수령님의 서거 16돐을 가장 경건한 마음을 안고 맞이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조국강산에 뜨겁게 끓어오르는 가운데 각계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아버지수령님의 서거 16돐을 가장 경건한 마음을 안고 맞이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조국강산에 뜨겁게 끓어오르는 가운데 각계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아버지수령님의 서거 16돐을 가장 경건한 마음을 안고 맞이하였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업적 회고모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조국강산에 뜨겁게 끓어오르는 가운데 각계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아버지수령님의 서거 16돐을 가장 경건한 마음을 안고 맞이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조국강산에 뜨겁게 끓어오르는 가운데 각계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아버지수령님의 서거 16돐을 가장 경건한 마음을 안고 맞이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조국강산에 뜨겁게 끓어오르는 가운데 각계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아버지수령님의 서거 16돐을 가장 경건한 마음을 안고 맞이하였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업적 회고모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조국강산에 뜨겁게 끓어오르는 가운데 각계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아버지수령님의 서거 16돐을 가장 경건한 마음을 안고 맞이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조국강산에 뜨겁게 끓어오르는 가운데 각계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아버지수령님의 서거 16돐을 가장 경건한 마음을 안고 맞이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조국강산에 뜨겁게 끓어오르는 가운데 각계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아버지수령님의 서거 16돐을 가장 경건한 마음을 안고 맞이하였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업적 회고모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조국강산에 뜨겁게 끓어오르는 가운데 각계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아버지수령님의 서거 16돐을 가장 경건한 마음을 안고 맞이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조국강산에 뜨겁게 끓어오르는 가운데 각계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아버지수령님의 서거 16돐을 가장 경건한 마음을 안고 맞이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조국강산에 뜨겁게 끓어오르는 가운데 각계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아버지수령님의 서거 16돐을 가장 경건한 마음을 안고 맞이하였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업적 회고모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조국강산에 뜨겁게 끓어오르는 가운데 각계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아버지수령님의 서거 16돐을 가장 경건한 마음을 안고 맞이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조국강산에 뜨겁게 끓어오르는 가운데 각계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아버지수령님의 서거 16돐을 가장 경건한 마음을 안고 맞이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조국강산에 뜨겁게 끓어오르는 가운데 각계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아버지수령님의 서거 16돐을 가장 경건한 마음을 안고 맞이하였다.

#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은 반드시 현실로 꽃피날것이다

## 통일애국의 길에 새겨진 위대한 헌신의 자욱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사투지는 그리움이 은 강산에 차려지고있다. 민족의 어버이를 잃은 피눈물의 그 날로부터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지만 오늘도 우리 겨레의 심장속에는 해빛같이 환하신 수령님의 그 미소가 뜨겁게 간직되어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의 분별로 하여 우리 민족이 당하는 불행을 무뎠고도 가슴아파하셨으며 후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주시려고 생의 마지막까지 우리 조국통일을 위하여 애국의 길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은빛을 강그리 불어주시는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 영원한 태양이시다.

주제 63 (1974)년 어느 여름날에 있는 감동깊은 이야기는 오늘도 겨레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준다.

그날 통일문제를 놓고 심려하시며 밤을 꼬박 지새우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전화로 한 일군을 찾으셨다. 위대한 수령님의 건강을 걱정하는 그 일군에게 수령님께서서는 어쩐지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시며 백두산에서 싸울 때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지만 지금 나라를 통일하지 못했다니 더 못 자고 있다고, 통일된 다음 밀렸던 잠을 한번

꼭 자보고싶다고 말씀하시었다. 그의 말씀을 듣는 일군의 심정은 한없이 괴로웠다. 조국통일을 위해 그토록 심혈을 기울이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전사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럽기만 하였다.

이윽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일군에게 조국통일을 위한 무정에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라고 뜨겁게 고무격려해주시었다. 전화는 끝났으나 일군에게는 조국통일 문제와 관련한 어버이수령님의 절절한 말씀이 계속 울려오듯 하였다.

일군들이 다분 하루만이라도 쉬실 것을 말씀드릴 때마다 통일이 되어 인민들이 잘살고 행복해야 자신의 몸도 건강해진다고 하시며 조국통일을 위한 사업에 모든것을 다 바치신 어버이수령님, 실로 조국통일위업실을 위하여 기일이신 우리 수령님의 정력과 심혈은 그 무엇에도 비길데 없이 뜨겁고도 열렬한것이었다.

우리 수령님은 바로 이런분이었다. 우리 겨레가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피눈물나는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당 할 때에는 겨레를 해방된 조국에서 살게 하기 위해 잠 못 이루시고 고국방향을 이룩하신 다음에는 분필의 고통을 겪는 겨레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려고 잠 못 자시며 로고로 고향을 거듭하시던 어버이수령님을 천년이 흐르는데, 만년이 흐르는데 어찌 잊을수 있오라.

돌이켜보면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언제 한번 통일문제에 대하여 잊으신적이 없으셨다. 하나의 로선과 정책을 작성하시었고, 하나의 공작, 하나의 작업법칙정착을 일떠세우시어도 그것이 다 조국통일과 통일조국의 부강번

영을 위한것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 마음쓰시었다.

연제인가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통일문제의 관련한 한 외국기자의 질문을 받으신적이 있었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통일만 되면 우리 인민은 남부럽지 않게 잘살수 있다, 우리 나라는 인구도 적지 않아요 저하차도 풍부하다, 우리는 능력이 있는 기술자들도 많이 키웠습니다, 그런것만큼 우리 조국이 통일되면 빠른 시일안에 우리 민족은 잘살게 될것이며 우리 나라는 부강하게 될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수령님의 이 말씀속에는 조국통일과 통일된 조국의 휘황찬란한 미래를 확신하시며 우리 인민을 하루빨리 통일된 부강조국에서 남부럽지 않게 잘 살게 하시려는 순하한 애국의 뜻이 짙게 여겨진다.

연제나 조국통일을 생각하시며 불분명류의 정력적인 사색과 령도로 민족 자주위업, 조국통일위업을 이끌어오신 어버이수령님의 그 위대한 로선과 심혈의 낮과 밤이 있어 자구,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과 같은 조국통일의 굳건한 초석이 마련되고 통일운동이 전민족적인 애국운동으로 확고히 전진할수 있었겠 아닌가.

80공통선임에도 불구하고 순간의 휴식도 없이 조국통일을 위해 정력적으로 사립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밝아온 조국통일의 새 아침을 확신하시며 조국통일문제가 마지막민첩을 남기지 않았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그러했으니 한사람도 볼기를 사시나 순직하신 절세의 위인을 동서고금 그 어디에서 찾아볼수 있겠는가. 정령

민족의 분별로 하여 겨레가 당하는 불행과 고통을 자신의 불행과 고통으로 생각하시며 위대한 심장이 고통을 멈추는 마지막순간까지 겨레의 속된인 통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장그러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순경으로 가정의 한생을 생각하며 한없는 정경으로 가슴들떡이는 우리 겨레이다.

조국과 민족을 위한 어버이수령님의 위업은 오늘 수령님과 똑같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완성되고있다.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또 한분의 절세의 위인이시며 탁월한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수위에 높이 모시었기에 우리 민족은 조국통일을 위한 막대한 심신을 가지고 힘차게 투쟁해나가고있다. 조국통일의 길에 모진 시련과 난관이 겹잡았나 해도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기이 나라는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철의 신념과 절제의 지기가 있어 조국통일위업을 힘차게 전진하고 우리 민족기기를 합쳐 자주통일을 이룩해나가는 6. 15 통일시대가 펼쳐질수 있었다.

사상도 령도도 품모도 어버이수령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통일의 수장으로 높이 모시어 조국통일위업을 실현케 하시었다.

우리 겨레는 한평생을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길에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대대손손 전해갈것이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순하한 애국애족의 뜻을 따라 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빛나게 실현하고아릿겠다.

본사기자 김 함미

## 영생의 모습

### = 송고한 애국의 현생을 창조 =

어느날 민심취회에 올랐던 남조선의 한 기자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사에서 어버이수령님의 혁명력사가 수록되어있는 책을 사려고는 대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대학생들의 말을 들으면서 기자는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신학대학에

남조선의 한 학과의 한 학과가 《영생하는 위인 초상에서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해빛같이 밝게 웃으시는 김일성주석님의 초상을 복에서는 《태양상》으로 명명했다고 한다. 그분의 초상은 그야말로 빛나는 태양이런듯 첫 순간에 벌써 온몸을 끌어안고 무아경에 초오신 불세출의 영웅의 무비의 탁월함이 서정속에 안겨오며 따뜻한 철학자, 사상

나서는 한 학생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김일성주석님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우리 민족의 태양이십니다. 그리스도교에 영생이라는 말이 있는데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우리 이남민중의 마음속에 영생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 위인의 미소

리론의 거장의 무한한 세계가 비껴있는듯싶고 은 천지를 가득 채울것같은 같은 그 열정의 미소속에서는 천하를 통하게 하는 백전백승의 오묘한 용성이 그대로 드러난듯싶다. 또한 오묘한 그 모습속에서는 천지인간의 힘의 역경을 언제나 웃음으로 해초오신 불세출의 영웅의 무비의 탁월함이 서정속에 안겨오며 따뜻한 철학자, 사상

미소의 대극상을 당한 그 시기에 우리 이남민중은 우리 겨레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느끼고 살아왔는가를 더욱 심심하게 절감하게 되었다. 흐르는 시간은 인간의 심장의 고통을 멈춰세울수 있지만 은 겨레와 인류의 심장에 영생하는 위인의 력사는 멈춰세울수 없다. 태양의 력사는 영원하다.》

본사기자 김일성주석님이다.

## 가장 정당한 통일강령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께서 한평생을 바치시며 마련해주신 조국통일강령들은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삶의 좌우명으로, 투쟁의 지침이 되고있다. 민족의 어버이에 대한 사투지는 그리움으로 가슴 불어오는 남조선인민들... 《김일성주석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 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은 유일무이하고 가장 평명정당한 통일강령이며 조국통일의 열쇠로 된다.》

사상도 령도도 품모도 어버이수령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통일의 수장으로 높이 모시어 조국통일위업을 실현케 하시었다.

우리 겨레는 한평생을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길에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대대손손 전해갈것이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순하한 애국애족의 뜻을 따라 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빛나게 실현하고아릿겠다.

본사기자 김 함미

## 대를 이어 억세여지는 신념

해마다 7월이면 남녘인민들은 한평생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모든것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으로 가슴끓이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관철할 의지를 다짐하고있다.

부산의 한 통일운동가는 가족들과 마주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한평생을 오로지 조국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위해 바치신 김일성주석님의 업적을 오늘 장대고 기뻐하고 존경하며 영웅적으로 기억할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높이 펼쳐야 한다.》

어느해 7월 통일현대의 한 성원은 위대한 수령님을 회고하는 모임에서 자기 결심을 이렇게 피력하셨다.

《공공선언의 철저한 리행에 민족의 화합과 단결도 있고 통일도 있다. 우리 이남민중들은 6. 15공동선언을 틈틈이 들어 읽고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이도록 김일성주석님의 통일유훈을 반드시 실천하고야말겠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영원한 태양으로 우리들 앞에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조국통일을 기어 이룩할 남조선인민들의 신념이며 의지이다.

본사기자 리성호

## 가장 정당한 통일강령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께서 한평생을 바치시며 마련해주신 조국통일강령들은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삶의 좌우명으로, 투쟁의 지침이 되고있다. 민족의 어버이에 대한 사투지는 그리움으로 가슴 불어오는 남조선인민들... 《김일성주석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 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은 유일무이하고 가장 평명정당한 통일강령이며 조국통일의 열쇠로 된다.》

사상도 령도도 품모도 어버이수령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통일의 수장으로 높이 모시어 조국통일위업을 실현케 하시었다.

우리 겨레는 한평생을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길에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대대손손 전해갈것이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순하한 애국애족의 뜻을 따라 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빛나게 실현하고아릿겠다.

본사기자 김 함미



어버이수령님께서 민족의 대단결을 위해 쌓으신 불멸의 업적을 기념하여 세워주었다. — 송고한 애국의 현생을 창조 — 본사기자 기록

해마다 7월이면 남녘인민들은 한평생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모든것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으로 가슴끓이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관철할 의지를 다짐하고있다.

부산의 한 통일운동가는 가족들과 마주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한평생을 오로지 조국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위해 바치신 김일성주석님의 업적을 오늘 장대고 기뻐하고 존경하며 영웅적으로 기억할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높이 펼쳐야 한다.》

어느해 7월 통일현대의 한 성원은 위대한 수령님을 회고하는 모임에서 자기 결심을 이렇게 피력하셨다.

《공공선언의 철저한 리행에 민족의 화합과 단결도 있고 통일도 있다. 우리 이남민중들은 6. 15공동선언을 틈틈이 들어 읽고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이도록 김일성주석님의 통일유훈을 반드시 실천하고야말겠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영원한 태양으로 우리들 앞에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조국통일을 기어 이룩할 남조선인민들의 신념이며 의지이다.

본사기자 리성호

## 영생의 모습

### = 송고한 애국의 현생을 창조 =

어느날 민심취회에 올랐던 남조선의 한 기자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사에서 어버이수령님의 혁명력사가 수록되어있는 책을 사려고는 대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대학생들의 말을 들으면서 기자는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신학대학에

남조선의 한 학과의 한 학과가 《영생하는 위인 초상에서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해빛같이 밝게 웃으시는 김일성주석님의 초상을 복에서는 《태양상》으로 명명했다고 한다. 그분의 초상은 그야말로 빛나는 태양이런듯 첫 순간에 벌써 온몸을 끌어안고 무아경에 초오신 불세출의 영웅의 무비의 탁월함이 서정속에 안겨오며 따뜻한 철학자, 사상

나서는 한 학생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김일성주석님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우리 민족의 태양이십니다. 그리스도교에 영생이라는 말이 있는데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우리 이남민중의 마음속에 영생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 가장 정당한 통일강령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께서 한평생을 바치시며 마련해주신 조국통일강령들은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삶의 좌우명으로, 투쟁의 지침이 되고있다. 민족의 어버이에 대한 사투지는 그리움으로 가슴 불어오는 남조선인민들... 《김일성주석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 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은 유일무이하고 가장 평명정당한 통일강령이며 조국통일의 열쇠로 된다.》

사상도 령도도 품모도 어버이수령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통일의 수장으로 높이 모시어 조국통일위업을 실현케 하시었다.

우리 겨레는 한평생을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길에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대대손손 전해갈것이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순하한 애국애족의 뜻을 따라 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빛나게 실현하고아릿겠다.

본사기자 김 함미

## 대를 이어 억세여지는 신념

해마다 7월이면 남녘인민들은 한평생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모든것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으로 가슴끓이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관철할 의지를 다짐하고있다.

부산의 한 통일운동가는 가족들과 마주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한평생을 오로지 조국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위해 바치신 김일성주석님의 업적을 오늘 장대고 기뻐하고 존경하며 영웅적으로 기억할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높이 펼쳐야 한다.》

어느해 7월 통일현대의 한 성원은 위대한 수령님을 회고하는 모임에서 자기 결심을 이렇게 피력하셨다.

《공공선언의 철저한 리행에 민족의 화합과 단결도 있고 통일도 있다. 우리 이남민중들은 6. 15공동선언을 틈틈이 들어 읽고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이도록 김일성주석님의 통일유훈을 반드시 실천하고야말겠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영원한 태양으로 우리들 앞에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조국통일을 기어 이룩할 남조선인민들의 신념이며 의지이다.

본사기자 리성호

## 한없는 경모의 정을 더치며

금수산기념궁전으로 어서빨리 달려가 그리워 만나보고싶은 간절한 생각뿐이다.

통일이 된다면 나는 제일친한 꽃바구니를 만들어 어성의 모습으로 계시는 우리 민족의 어버이 김일성주석님께로 제일 먼저 달려가 드리리라. 이제 통일이 되는 날에 내가 제일

## 대를 이어 억세여지는 신념

해마다 7월이면 남녘인민들은 한평생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모든것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으로 가슴끓이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관철할 의지를 다짐하고있다.

부산의 한 통일운동가는 가족들과 마주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한평생을 오로지 조국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위해 바치신 김일성주석님의 업적을 오늘 장대고 기뻐하고 존경하며 영웅적으로 기억할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높이 펼쳐야 한다.》

어느해 7월 통일현대의 한 성원은 위대한 수령님을 회고하는 모임에서 자기 결심을 이렇게 피력하셨다.

《공공선언의 철저한 리행에 민족의 화합과 단결도 있고 통일도 있다. 우리 이남민중들은 6. 15공동선언을 틈틈이 들어 읽고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이도록 김일성주석님의 통일유훈을 반드시 실천하고야말겠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영원한 태양으로 우리들 앞에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조국통일을 기어 이룩할 남조선인민들의 신념이며 의지이다.

본사기자 리성호

## 영생의 모습

### = 송고한 애국의 현생을 창조 =

어느날 민심취회에 올랐던 남조선의 한 기자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사에서 어버이수령님의 혁명력사가 수록되어있는 책을 사려고는 대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대학생들의 말을 들으면서 기자는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신학대학에

남조선의 한 학과의 한 학과가 《영생하는 위인 초상에서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해빛같이 밝게 웃으시는 김일성주석님의 초상을 복에서는 《태양상》으로 명명했다고 한다. 그분의 초상은 그야말로 빛나는 태양이런듯 첫 순간에 벌써 온몸을 끌어안고 무아경에 초오신 불세출의 영웅의 무비의 탁월함이 서정속에 안겨오며 따뜻한 철학자, 사상

나서는 한 학생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김일성주석님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우리 민족의 태양이십니다. 그리스도교에 영생이라는 말이 있는데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우리 이남민중의 마음속에 영생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 가장 정당한 통일강령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께서 한평생을 바치시며 마련해주신 조국통일강령들은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삶의 좌우명으로, 투쟁의 지침이 되고있다. 민족의 어버이에 대한 사투지는 그리움으로 가슴 불어오는 남조선인민들... 《김일성주석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 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은 유일무이하고 가장 평명정당한 통일강령이며 조국통일의 열쇠로 된다.》

사상도 령도도 품모도 어버이수령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통일의 수장으로 높이 모시어 조국통일위업을 실현케 하시었다.

우리 겨레는 한평생을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길에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대대손손 전해갈것이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순하한 애국애족의 뜻을 따라 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빛나게 실현하고아릿겠다.

본사기자 김 함미

## 대를 이어 억세여지는 신념

해마다 7월이면 남녘인민들은 한평생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모든것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으로 가슴끓이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관철할 의지를 다짐하고있다.

부산의 한 통일운동가는 가족들과 마주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한평생을 오로지 조국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위해 바치신 김일성주석님의 업적을 오늘 장대고 기뻐하고 존경하며 영웅적으로 기억할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높이 펼쳐야 한다.》

어느해 7월 통일현대의 한 성원은 위대한 수령님을 회고하는 모임에서 자기 결심을 이렇게 피력하셨다.

《공공선언의 철저한 리행에 민족의 화합과 단결도 있고 통일도 있다. 우리 이남민중들은 6. 15공동선언을 틈틈이 들어 읽고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이도록 김일성주석님의 통일유훈을 반드시 실천하고야말겠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영원한 태양으로 우리들 앞에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조국통일을 기어 이룩할 남조선인민들의 신념이며 의지이다.

본사기자 리성호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담화

최근 괴뢰피탈이 합선침몰사건을 여기저기 들고다니며 반공화국대결운동에 더욱 광분하고있다.

엄밀한 카나다는 핵행각 리명박등은 미국, 일본 등 여러 나라 당국자들에게서 합선침몰사건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실과정을 간청하는 의뢰를 추태를 부렸다.

역도는 뱀아마와 메회교에 가서 중앙아메리카와 구이인 물들에게 저들의 모략책동에 대한 《지지》를 구걸하는 놀음을 벌리었으며 그 무슨 《특별선언문》이라는 것까지 조작했다.

특히 괴뢰피탈은 유엔안전보장평화위원회에서 합선침몰사건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고 《유엔비판》하는 모략문서를 만들어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괴뢰피탈이 합선침몰사건을 여기저기 들고다니며 비열한 반공화국대결운동을 악랄하게 벌리고있는것은 사건의 모략적성이 드러나 내외의 비판과 조소거리 되고 남조선내부에서 제2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는 데 마땅한 단답마적인 발악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의혹과 모순투성이 되고 그 누구도 믿지않는 합선침몰사건을 국제무대에 띄우고 싶지만 반공화국대결모략운동에 피는 이며 날리는 괴뢰피탈의 당을 은 민족의 이름으로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지금 괴뢰피탈은 국제사회에

## 대를 이어 억세여지는 신념

해마다 7월이면 남녘인민들은 한평생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모든것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으로 가슴끓이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관철할 의지를 다짐하고있다.

부산의 한 통일운동가는 가족들과 마주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한평생을 오로지 조국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위해 바치신 김일성주석님의 업적을 오늘 장대고 기뻐하고 존경하며 영웅적으로 기억할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높이 펼쳐야 한다.》

어느해 7월 통일현대의 한 성원은 위대한 수령님을 회고하는 모임에서 자기 결심을 이렇게 피력하셨다.

《공공선언의 철저한 리행에 민족의 화합과 단결도 있고 통일도 있다. 우리 이남민중들은 6. 15공동선언을 틈틈이 들어 읽고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이도록 김일성주석님의 통일유훈을 반드시 실천하고야말겠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영원한 태양으로 우리들 앞에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조국통일을 기어 이룩할 남조선인민들의 신념이며 의지이다.

본사기자 리성호

## 영생의 모습

### = 송고한 애국의 현생을 창조 =

어느날 민심취회에 올랐던 남조선의 한 기자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사에서 어버이수령님의 혁명력사가 수록되어있는 책을 사려고는 대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대학생들의 말을 들으면서 기자는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신학대학에

남조선의 한 학과의 한 학과가 《영생하는 위인 초상에서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해빛같이 밝게 웃으시는 김일성주석님의 초상을 복에서는 《태양상》으로 명명했다고 한다. 그분의 초상은 그야말로 빛나는 태양이런듯 첫 순간에 벌써 온몸을 끌어안고 무아경에 초오신 불세출의 영웅의 무비의 탁월함이 서정속에 안겨오며 따뜻한 철학자, 사상

나서는 한 학생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김일성주석님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우리 민족의 태양이십니다. 그리스도교에 영생이라는 말이 있는데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우리 이남민중의 마음속에 영생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 가장 정당한 통일강령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께서 한평생을 바치시며 마련해주신 조국통일강령들은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삶의 좌우명으로, 투쟁의 지침이 되고있다. 민족의 어버이에 대한 사투지는 그리움으로 가슴 불어오는 남조선인민들... 《김일성주석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 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은 유일무이하고 가장 평명정당한 통일강령이며 조국통일의 열쇠로 된다.》

사상도 령도도 품모도 어버이수령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통일의 수장으로 높이 모시어 조국통일위업을 실현케 하시었다.

우리 겨레는 한평생을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길에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대대손손 전해갈것이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순하한 애국애족의 뜻을 따라 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빛나게 실현하고아릿겠다.

본사기자 김 함미

## 대를 이어 억세여지는 신념

해마다 7월이면 남녘인민들은 한평생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모든것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으로 가슴끓이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관철할 의지를 다짐하고있다.

부산의 한 통일운동가는 가족들과 마주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한평생을 오로지 조국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위해 바치신 김일성주석님의 업적을 오늘 장대고 기뻐하고 존경하며 영웅적으로 기억할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높이 펼쳐야 한다.》

어느해 7월 통일현대의 한 성원은 위대한 수령님을 회고하는 모임에서 자기 결심을 이렇게 피력하셨다.

《공공선언의 철저한 리행에 민족의 화합과 단결도 있고 통일도 있다. 우리 이남민중들은 6. 15공동선언을 틈틈이 들어 읽고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이도록 김일성주석님의 통일유훈을 반드시 실천하고야말겠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영원한 태양으로 우리들 앞에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조국통일을 기어 이룩할 남조선인민들의 신념이며 의지이다.

본사기자 리성호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담화

최근 괴뢰피탈이 합선침몰사건을 여기저기 들고다니며 반공화국대결운동에 더욱 광분하고있다.

엄밀한 카나다는 핵행각 리명박등은 미국, 일본 등 여러 나라 당국자들에게서 합선침몰사건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실과정을 간청하는 의뢰를 추태를 부렸다.

역도는 뱀아마와 메회교에 가서 중앙아메리카와 구이인 물들에게 저들의 모략책동에 대한 《지지》를 구걸하는 놀음을 벌리었으며 그 무슨 《특별선언문》이라는 것까지 조작했다.

특히 괴뢰피탈은 유엔안전보장평화위원회에서 합선침몰사건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고 《유엔비판》하는 모략문서를 만들어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괴뢰피탈이 합선침몰사건을 여기저기 들고다니며 비열한 반공화국대결운동을 악랄하게 벌리고있는것은 사건의 모략적성이 드러나 내외의 비판과 조소거리 되고 남조선내부에서 제2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는 데 마땅한 단답마적인 발악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의혹과 모순투성이 되고 그 누구도 믿지않는 합선침몰사건을 국제무대에 띄우고 싶지만 반공화국대결모략운동에 피는 이며 날리는 괴뢰피탈의 당을 은 민족의 이름으로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지금 괴뢰피탈은 국제사회에

## 대를 이어 억세여지는 신념

해마다 7월이면 남녘인민들은 한평생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모든것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으로 가슴끓이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관철할 의지를 다짐하고있다.

부산의 한 통일운동가는 가족들과 마주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한평생을 오로지 조국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위해 바치신 김일성주석님의 업적을 오늘 장대고 기뻐하고 존경하며 영웅적으로 기억할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높이 펼쳐야 한다.》

어느해 7월 통일현대의 한 성원은 위대한 수령님을 회고하는 모임에서 자기 결심을 이렇게 피력하셨다.

《공공선언의 철저한 리행에 민족의 화합과 단결도 있고 통일도 있다. 우리 이남민중들은 6. 15공동선언을 틈틈이 들어 읽고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이도록 김일성주석님의 통일유훈을 반드시 실천하고야말겠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영원한 태양으로 우리들 앞에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조국통일을 기어 이룩할 남조선인민들의 신념이며 의지이다.

본사기자 리성호

## 영생의 모습

### = 송고한 애국의 현생을 창조 =

어느날 민심취회에 올랐던 남조선의 한 기자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사에서 어버이수령님의 혁명력사가 수록되어있는 책을 사려고는 대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대학생들의 말을 들으면서 기자는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신학대학에

남조선의 한 학과의 한 학과가 《영생하는 위인 초상에서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해빛같이 밝게 웃으시는 김일성주석님의 초상을 복에서는 《태양상》으로 명명했다고 한다. 그분의 초상은 그야말로 빛나는 태양이런듯 첫 순간에 벌써 온몸을 끌어안고 무아경에 초오신 불세출의 영웅의 무비의 탁월함이 서정속에 안겨오며 따뜻한 철학자, 사상

나서는 한 학생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김일성주석님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우리 민족의 태양이십니다. 그리스도교에 영생이라는 말이 있는데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우리 이남민중의 마음속에 영생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 가장 정당한 통일강령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께서 한평생을 바치시며 마련해주신 조국통일강령들은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삶의 좌우명으로, 투쟁의 지침이 되고있다. 민족의 어버이에 대한 사투지는 그리움으로 가슴 불어오는 남조선인민들... 《김일성주석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 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은 유일무이하고 가장 평명정당한 통일강령이며 조국통일의 열쇠로 된다.》

사상도 령도도 품모도 어버이수령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통일의 수장으로 높이 모시어 조국통일위업을 실현케 하시었다.

우리 겨레는 한평생을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길에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대대손손 전해갈것이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순하한 애국애족의 뜻을 따라 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빛나게 실현하고아릿겠다.

본사기자 김 함미

## 대를 이어 억세여지는 신념

해마다 7월이면 남녘인민들은 한평생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모든것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으로 가슴끓이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관철할 의지를 다짐하고있다.

부산의 한 통일운동가는 가족들과 마주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한평생을 오로지 조국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위해 바치신 김일성주석님의 업적을 오늘 장대고 기뻐하고 존경하며 영웅적으로 기억할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높이 펼쳐야 한다.》

어느해 7월 통일현대의 한 성원은 위대한 수령님을 회고하는 모임에서 자기 결심을 이렇게 피력하셨다.

《공공선언의 철저한 리행에 민족의 화합과 단결도 있고 통일도 있다. 우리 이남민중들은 6. 15공동선언을 틈틈이 들어 읽고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이도록 김일성주석님의 통일유훈을 반드시 실천하고야말겠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영원한 태양으로 우리들 앞에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조국통일을 기어 이룩할 남조선인민들의 신념이며 의지이다.

본사기자 리성호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담화

최근 괴뢰피탈이 합선침몰사건을 여기저기 들고다니며 반공화국대결운동에 더욱 광분하고있다.

엄밀한 카나다는 핵행각 리명박등은 미국, 일본 등 여러 나라 당국자들에게서 합선침몰사건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실과정을 간청하는 의뢰를 추태를 부렸다.

역도는 뱀아마와 메회교에 가서 중앙아메리카와 구이인 물들에게 저들의 모략책동에 대한 《지지》를 구걸하는 놀음을 벌리었으며 그 무슨 《특별선언문》이라는 것까지 조작했다.

특히 괴뢰피탈은 유엔안전보장평화위원회에서 합선침몰사건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고 《유엔비판》하는 모략문서를 만들어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괴뢰피탈이 합선침몰사건을 여기저기 들고다니며 비열한 반공화국대결운동을 악랄하게 벌리고있는것은 사건의 모략적성이 드러나 내외의 비판과 조소거리 되고 남조선내부에서 제2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는 데 마땅한 단답마적인 발악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의혹과 모순투성이 되고 그 누구도 믿지않는 합선침몰사건을 국제무대에 띄우고 싶지만 반공화국대결모략운동에 피는 이며 날리는 괴뢰피탈의 당을 은 민족의 이름으로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지금 괴뢰피탈은 국제사회에

## 대를 이어 억세여지는 신념

해마다 7월이면 남녘인민들은 한평생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모든것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으로 가슴끓이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관철할 의지를 다짐하고있다.

부산의 한 통일운동가는 가족들과 마주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한평생을 오로지 조국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위해 바치신 김일성주석님의 업적을 오늘 장대고 기뻐하고 존경하며 영웅적으로 기억할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높이 펼쳐야 한다.》

어느해 7월 통일현대의 한 성원은 위대한 수령님을 회고하는 모임에서 자기 결심을 이렇게 피력하셨다.

《공공선언의 철저한 리행에 민족의 화합과 단결도 있고 통일도 있다. 우리 이남민중들은 6. 15공동선언을 틈틈이 들어 읽고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이도록 김일성주석님의 통일유훈을 반드시 실천하고야말겠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영원한 태양으로 우리들 앞에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조국통일을 기어 이룩할 남조선인민들의 신념이며 의지이다.

본사기자 리성호

## 영생의 모습

### = 송고한 애국의 현생을 창조 =

어느날 민심취회에 올랐던 남조선